

南道の山河 굽어보며 갑오년 힘찬 飛上의 나래를 펴다

키우리산악회 신년산행 무안 연정산



김성진 키우리산악회 총무

키우리산악회(회장 이영길)가 갑오년 새해를 맞아 연정산으로 첫 산행에 나섰다.

지난 11일 아침, 엇그제까지만 해도 매서운 겨울 바람에 곤혹을 치렀는데 갑자기 계절이 바뀌듯 날씨가 포근했다. 이른 아침 비엔날레주차장에서 만난 회원들 모두 첫 인사가 날씨다. 마치 키우리산행을 위한 것처럼 날씨가 반전했기 때문이다.

일행은 무안 연정산으로 향했다. 산을 제법 가 봤지만 연정산은 잘 들어보지 못한 다소 생소한 산이다. 그래서 일가 더 호기심이 발동했다.

광주서 연정산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다. 잘 뚫린 도로를 1시간 남짓 달려 남산공원 주차장에 도착했다. 오늘 산행코스는 남산공원-오거리-전망숲-연정산정상(시산제)-능선-전망대-물맞이공원에 이르는 5km남짓이다. 일행은 등산화 끈을 조여 매고, 무안읍 남산공원입구에서 산행을 시작했다.

비교적 짧은 데다 해발 300m정도로 낮아 가벼운 마음으로 산행에 나섰다. 늘 그렇지만 출발은 썩썩하다. 그러나 산은 산이다. 10분, 20분 가다보니 몸에 신호가 오기 시작하더니 전망대에 도착할 무렵 제법 땀이 났다. '잠깐 쉬어가자'며 주변을 돌아보니 발 밑에 초당대학교, 또 멀리 산 너머에는 바다가 보인다. 남산 밑 오거리를 지나면서 보니 길옆 소나무들이 많이 넘어져 있다.

아마도 2012년 태풍 볼라벤의 강풍으로 수령이 수십년된 소나무 등이 부러진 것 같다. 자연재해 앞에서는 인간도 속수무책일 때가 있다는 게 반면교사로 와 닿는다.

연정산 삼거리에서 이정표를 보니 정상이 0.7km 남았다. 체력이 많이 소모되고 숨이 차 발걸음이 무거웠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후미그룹에서 힘들어하는 일행들을 돌리려며 함께 걸어 올라갔다. 어렵게 정상에 도착하니 먼저 도착한 일행이 박수로 따뜻하게 맞이해 준다.

잠깐 숨을 고르고 생수 한 모금 마시니 풍경이 보인다. 동서남북 전방향의 시야가 탁 트여 마음까지 시원했다. 동쪽으로 도도히 흐르는 영산강과 나주 동강 들녘까지 한눈에 들어왔다.

일행은 준비한 음식으로 시산제를 지냈다. 올 한해 무사안녕을 기원하고 회원들의 건강을 소원해 보자는 취지다. 산악회 총무를 맡고 있어 남다른 책임



정상에서 바라본 남도의 산하. 멀리 영산강 너리지와 몽탄교가 보인다.

자연과의 일체감을 느끼며 아름다운 인연과 맑은 나눔 산행삼매에서 배운 즐거움 여유만만 행복한 일상으로

감이 느껴졌다.

사실 산행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사고가 나곤 하는데 그때마다 총무로서 무한책임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시산제에 대한 기대와 의미가 남달랐다. 개인적인 바람도 있지만 회원들의 안녕과 무사산행을 기원했다. 일행은 간단한 시산제를 마치고

음식을 먹으면서 덕담을 나눴다.

새해 첫 산행인지라 인사가 더 정겨웠다. 일행은 서로를 격려하면서 정담을 나눈 뒤 바로 하산에 나섰다. 능선을 따라 걸으니 올라올 때와는 다르게 이제 모두 발걸음이 가볍다.

일반적으로 산행에서 3분의 1은 선두그룹으로 산세며 주변을 조망하면서 올라가고, 중간 3분의 1은 선두 그룹 따라가기 바쁘고, 마지막 3분의 1 하위그룹은 앞사람의 발뒤꿈치만 보고 쫓아가기 바쁘다는 얘기가 있는데 딱 와 닿았다. 올라갈 땐 후미에서 그냥 쫓아가기 바빴는데 내려올 때 여유를 가지니 한결 가벼웠다. 총 5km, 3시간 정도 소요되니 함께하는 일행 모두 올해의 신년계획을 다시 생각하기도 하고, 올해 이루고 싶은 일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도 되었다.

사색의 숲 삼거리를 지나 내려오니 참나무 낙엽 밟은 소리가 바스락거리는 게 너무 좋았다.

산에 오지 않았으면 느낄 수 없는 즐거움이다. 나무계단도 만들어 놓아 잠깐 쉬면서 산행격언을 생각해 보니 '멀리 가려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 출발하고, 높이 올라가려면 반드시 낮은 곳으로 부터 출발하라'는 말이 생각났다.

오늘 산에서 만난 사람마다 인사를 했지만 사회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왜 그리 인사에 인색한지... 한마디 인사가 산행을 더욱 밝게 만들어주는데, 가고 오는게 말이요. 가고 오는 길에 만나는 게 사람인데...

신년 첫 산행이어서 일가. 일반적으로 산에서 내려오면 모두가 발걸음보다 마음이 가벼이는데, 오늘은 여유 있는 산행 덕분과 마음과 몸이 한결 편안했



연정산 정상에서 회원들 단체사진.



올 한해 산행의 무사안녕을 기원하고 회원들의 건강을 소원해 보며 연정산 정상에서 올린 시산제.

다. 여기에 올해 계획도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었다. 이번 산행도 '적자 생존'으로 마무리했다. /글=김성진(키우리산악회 총무) /사진=이광호(광주매일신문 시민기자)

www.가족회관.kr

전통 남도 한정식의 명가!

가족회관

남도 전통 한정식 10년전 가격으로 고객님의 모십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보양식 약오리전골/꼬리탕(찜) 아귀찜

점심특선 한정식(1인 18,000원, 3인 이상 15,000원) 녹차 굴비정식

▶ 결혼피로연, 각종모임, 상견례 전문, 맞춤형 가격 주문가능. ▶ 가족회관: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59-15 ▶ 예약전화:062)222-3845 (가족회관 건너편 대형주차장 완비)

“영화의 전당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예매: www.megabox.co.kr
▶ ARS: 1544-0070

*업그레이드 쿠폰이벤트(주말까지 광영) * 2,000원 할인(총2인)~2,000원 할인(총2인)~영화티켓무료!!
* 1명비상 동반 4인까지 2,000원 할인*

1관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12세
2관	집으로 가는 길/호빗:스마우그의 배허	12세
3관	타잔(더빙)/변호인	전체관람
4관	타잔(더빙)/변호인	전체관람
5관	더 울프 오브 윌스트리트	전체관람
6관	변호인	15세
7관	플랜맨	15세
8관	용의자	15세
9관	센더와 마법저택(더빙)/플랜맨	전체관람
10관	포켓몬스터 신의속도 케노세크트 무츠와라성(더빙)/용의자	전체관람

메가박스클름버스시네마상무

업그레이드 쿠폰이벤트(주말까지 광영) * 2,000원 할인(총2인)~2,000원 할인(총2인)~영화티켓무료!!
* 1명비상 동반 4인까지 2,000원 할인

1관	변호인	15세
2관	변호인	15세
3관	변호인	15세
4관	저스틴(더빙)/더 울프 오브 윌스트리트	전체관람
5관	저스틴(더빙)/앤디 매직(더빙)/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전체관람
6관	타잔(더빙)/어바웃 타임	전체관람
7관	용의자	15세
8관	포켓몬스터 신의속도 케노세크트 무츠와라성(더빙)앤디스 게임	전체관람
9관	플랜맨	15세
10관	용의자	15세

메가박스클름버스시네마하남

※매일 심야상영합니다!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무료주차 3시간 북구보건소 건너편

1관	플랜맨	15세
2관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12세
3관	앤디스 게임/어바웃 타임	12세
4관	용의자	15세
5관	저스틴(더빙)/앤디스 게임	전체관람
6관	더 울프 오브 윌스트리트	전체관람
7관	어바웃 타임	12세
8관	저스틴(더빙)	전체관람
9관	변호인	15세
10관	변호인	15세

메가박스전대